

# 사이트(SA-YIT) 여주대학 자동차 연구회

## Study to Automotive - Yeojoo Institute of Technology



정찬문 / 여주대학 교수  
Chan Moon Chung / Yeojoo Institute of Technology



▲ SA-YIT 자동차 연구회 회원

### 1. SA-YIT 동아리 소개

자동차 제작을 통한 실무 능력 증진과 새로운 감각의 자동차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여주대학 자동차 연구회는 1998년 5월 1일 창립되었다. 당시 여주대학 자동차과는 교육부로부터 전국 최초 자동차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지정할 정도로 현장 실무위주의 교육과 학과 특성화 교육에 매진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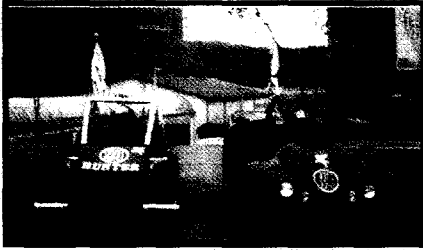
자동차과에 입학한 학생은 2학년 때부터 자동차정비와 자동차 설계분야로 나누어 학생들의 적성과 현장에 맞는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산업체와 학

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기도 했었다. 하지만 자동차를 설계하고 생산하여 사후관리까지의 자동차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자동차의 모든 것을 체험하기에 2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았다.

“짧은 기간에 그들에게 자동차의 모든 것을 체험하게 하자. 그리고 미래의 자동차 꿈나무를 심어 주자.” 이것이 바로 여주대학 자동차과 정찬문 지도 교수가 자동차 연구회를 대동시킨 모티브이다.

이와같은 컨셉을 바탕으로 동아리 회원을 최초로 모집한 결과 60여명이 응시하여 지도교수 면접과 개인별 동아리 활동계획 등을 발표하게 하여 20여명의 유능한 동아리가족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최초에는 산업디자인, 도예 등을 전공한 학생들도 참여했고 지원자가 쇄도했으나 활동은 미미했다. 창립 이후 2년간은 영남대학교에서 주관했던 전국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 참가를 위주로 제작, 출전하여 종합 4위(전문대학부문1위), 8위 및 디자인상을 수여했다.

이후 1999년도부터는 저 연비 자동차의 제작에 총력을 기울였다. 미래의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과제는 에너지와 환경이다. 제한된 석유자원과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공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동차 공학도들의 숙명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 자작자동차( HUNTER, RED ZONE )

시대의 요구에 걸맞게 전남대학교 국책사업단이 주최하는 저 연비 대회는 1998년부터 시작하였고 여주대학은 1999년 제 2회 대회에 처녀 출전하였다.

새로운 분야의 시작과 개척은 모두에게 정말 어려운 시련이었다. 하지만 여주대학 자동차 동아리는 그 역경을 딛고 첫해부터 우수디자인상과 드림상을 차지했고 이듬해인 2000년에는 종합 1위와 3위에 이어 작년 제 4회 대회에서는 종합 1, 2위라는 연 2연패의 쾌거를 이룩하였다. 특히, 연료 1리터로 439키로를 주행하여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한국 최초의 공식기록을 갖으면서 메스컴들의 헤드라인 뉴스를 타는 영광도 있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에피소드도 많았으나 우승의 이면에는 지도교수인 정찬문 교수의 노력과 특히, 일본 박사학위 중에 저연비 대회를 직접 경험하고 돌아온 임석현 교수의 숨은 공로와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 2. SA-YIT 동아리 활동 상황

### ● 1998년 활동

- 자동차 연구동아리 창립 (지도교수 정찬문)



▲ 2001년 저 연비 대회 우승



▲ 저 연비 자동차(ECONO-BEST & ZONE)

- 자작 1호차 제작: 차명 헌터(Hunter)
- 자작 2호차 제작: 차명 레드존(Red Zone)
- 제 3회 전국자동차 경주대회 참가: 영남대 주최 (98개팀 중 종합 4위, 8위, 디자인상 수상)

### ● 1999년 활동

- 저연비 1호차 제작: 차명 이코노 존
- 저연비 2호차 제작: 차명 이코노 베스트
- 제2회 전국저연비자동차경주대회 참가 (우수 디자인상, 드림상 수상)

● 2000년 활동

- 자작 3호차 제작: 차명 파워 트레인
- 저연비 3호차 제작: 차명 이코노 존
- 제 1회 전국대학자동차기술경주대회 참가  
(주관: 대한자동차기술학회, 장려상 수상)
- 제 3회 전국저연비자동차경진대회 참가  
(종합 1위, 종합 3위 상 수상)
- 제 1회 이코노 마라톤대회 참가  
(주최: 카넷 티브이, 장려상 수상)
- KBS - TV 우수동아리 출연  
(벤처코리아 프로: 방영시간 4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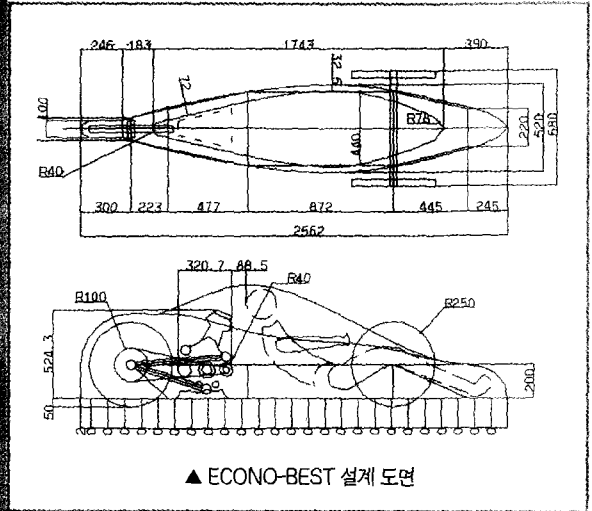
● 2001년 활동

- 자작 4호차 제작: 차명 파워맥스
- 저연비 4호차 제작: 차명 이코노 베스트
- 저연비 5호차 제작: 차명 이코노 드림
- 제 2회 전국대학자동차기술경주대회 참가  
(우수기술상, 자동차문화상 수상)
- 제 4회 전국저연비자동차경진대회 참가  
(종합 1위, 종합 2위상 수상)
- 중기청지정 2001우수창업 동아리 지정

3. SA-YIT 동아리 향후 계획

2002년 우리동아리는 작년에 여러가지 시행착오들을 경험했다. 저연비 자동차를 개발하면서 신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메커니즘을 바꾸면서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효과를 경험하기도 했다. 트윈플러그, 도그 클러치, 전자제어 연료분사장치 등.

물론, 놀랄 정도로 뛰어난 아이디어와 개선을 하고 대회에 참가하여 패배의 쓴잔을 마신 타 대학 동아리들의 시행착오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지만 말



이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소중한 교훈 하나를 얻었다. “검증되지 않은 뛰어난 아이디어와 개발품은 한낱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 동아리는 돌아오는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저연비 대회의 선진국인 일본을 방문하여 우리들의 시행착오를 냉철히 분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차분하게 새로운 시스템과의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면 다시 한번 승리의 옥동자가 탄생하리라 기대한다. 물론 기회가 된다면 타 대학 동아리 팀과 기술과 정보교환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제 5회 전국 저연비자동차 대회 3연패의 명작을, 춘천에서 실시되는 제 3회 전국대학자동차기술경주대회에서는 그동안 수상했던 특별상보다는 종합우수상을 목표로 전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중기청이 지정한 창업동아리 활동은 1건의 특허신청과 2건의 자동차 연료 절감장치 창업을 계획중이다.

“Dream of Economy Car” 이것이 우리 동아리가



▲ ECONO-ZONE Cray Modeling

꿈꾸는 자동차 제작의 목표이다. 우리는 꿈을 먹고 산다. 물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어려움의 감내는 꿈꾸는 자의 임무이다.

기계공학의 꽃이며 인간이 발명한 문명의 이기 중에 가장 매력적인 도구라는 자동차에 우리가 불어 넣어야 할 또 하나의 새로운 생명……

그것을 창조한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고 자동차 공학도들에게 힘을 안겨준다. 그 힘으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도전할 것이다.

#### 4. 맺음말

금세기 명차의 탄생은 그가 태어난 가문의 역사와 더불어 명품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 이면에는 자동차개발과 기술을 면면히 이어온 명가의 장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동차의 역사와 더불어 끊임없는 개혁 정신과 조상들이 거친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 중요한 습성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대학 동아리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매년 반복되는 자동차 제작의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명품의 탄생을 기대한다. 그리고 자동차 제작에 미쳐 날밤 세우며 개선하고 멋진 아이디어를 적용하고도 후배나 누군가를 위해 기록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졸업과 군 입대라는 명분으로 떠나간다. 이제 남은 후배들도 선배가 경험한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다시 한 번 겪으면서 고뇌와 좌절, 그리고 푸념을 할 것이다.

여주대학 자동차연구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4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비약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내면에는 항상 비어있고 허전하다. 떠나는 졸업생과 들어오는 신입생의 짧은 인연,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일상화된 카테고리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동아리를 지도하는 지도교수의 가슴은 황량하기만 하다. 하지만 그들에게 희망은 있다.

“자동차에 미쳐본 그들이 언젠가는 새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 것이다.”

(최병철 편집위원 : bcchoi@chonnam.ac.kr)